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2월 5주~1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도시개발] Cushman & Wakefield, 자카르타 MRT 일대 TOD 확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성장¹⁾(*Tempo*, 12/17)
 - Cushman & Wakefield Indonesia 전략컨설팅 디렉터 Arief Rahardjo는 이번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MRT 노선을 따라 도입된 대중교통지향개발(TOD)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TOD는 교통 연결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부문 간 투자 매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
 - Arief 디렉터는 MRT 노선이 통합개발지역 조성의 핵심 촉매로 작용하면서 오피스·리테일·주거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수요 증가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또한 TOD가 대중교통과 도시계획의 통합을 촉진하며, 이는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의 견조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 또한 오피스 부문에서는 '25년 자카르타 CBD 시장의 순흡수 면적이 105m²를 기록했으며, Grade A 빌딩이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같은 기간 오피스 점유율은 76.7%로 상승했으며, '27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6년에는 78.8%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
- [도시개발] JICA, JUTPI-3 통해 Blok M·Depok Baru TOD 개발 추진²⁾(*Bisnis*, 12/23)
 - 교통부 교통통합·복합교통국 국장 Risal Wasal은 일본 정부 및 JICA와 Jabodetabek 도시교통정책 통합 3단계(JUTPI-3³⁾) 프로그램을 통해

1) <https://www.tempo.co/ekonomi/bisnis-properti-sepanjang-koridor-mrt-jakarta-tumbuh-2099889>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5122/471939190/in-jepang-siap-bangun-3-titik-tod-di-blok-m-bekasi-depok#pg_rewared

3) JUTPI-3: Jabodetabek Urban Transportation Policy Integration Phase 3

대중교통지향개발(TOD)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인니의 통합형 대중교통 개발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JICA가 공개한 JUTPI-3 문서에 따르면, Blok M 지역은 중·고층 건물 개발과 중앙정부 청사 및 주요 버스터미널 재편을 통해 행정·비즈니스·상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동성 측면에서는 노상 주차 축소를 위해 주차 공간을 실내로 유도하고, Little Tokyo와 Blok M Square 구역을 통합 개발해 Blok M MRT와 버스터미널 간 보행 연결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
- 아울러 Depok Baru 지역은 Depok市의 주요 도시 중심지로 개발돼 중심업무지구와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Depok Baru가 도시 경제 및 행정 활동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 [도시개발] 자카르타 광역권 인구 4,200만명으로 세계 최대 광역 도시 기록⁴⁾(*Financial Times*, 12/28)
 - 유엔은 세계 최대 도시 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자카르타와 보고르·데폭·탕그랑·브카시 등 위성도시를 포함한 광역 도시권 인구가 약 4,200만 명에 달해 도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도시가 됐다고 설명. 기존 자카르타 인구 1,100만 명 기준을 넘어선 산정으로, 자카르타는 '18년 30위에서 '25년 1위로 상승했으며 방글라데시 다카가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아시아 도시가 차지했다고 덧붙임
 - 전문가들은 자카르타가 인니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약 16.7%를 기여했으나, 인프라 확충 속도는 도시 확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광역권을 단일 시스템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주거비 상승과 통근인구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은 하루 350만~400만 명이 통근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49억불 중 30%를 대중교통과 연계성 강화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 다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4) <http://www.ft.com/content/4ee58650-3e91-4c0b-8411-4827e0639cc>

이전 관련 재정이 약 10억불 삭감될 예정이어서 인프라 유지·관리에 제약이 예상된다고 덧붙임

○ [인프라-철도] 철도 재가동으로 1.2만km 확대 및 화물철도 전환 추진⁵⁾
(Bisnis, 12/23)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KAI가 운영중인 철도 노선 총연장을 철도 재가동을 통해 현재 7,000km에서 향후 1.2만km까지 확대하고, 화물철도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 AHY 장관은 철도망 확충 노력이 단순히 여객 서비스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중심의 화물운송 부담을 철도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물류비 절감과 지역사회 생산성 제고 및 재화·서비스 흐름 원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
- 아울러 이번 조치는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를 완화하고, 도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으로 평가한다고 설명

○ [인프라-철도] MRTJ, 2A단계 공정률 약 55% 도달 및 Bundaran HI-Kota 구간 건설 가속화⁶⁾
(Bisnis, 12/23)

- PT MRT Jakarta(MRTJ) 사장 Tuhiyat는 Bundaran HI와 Kota를 연결하는 MRT Jakarta 2A단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 이어 MRT 2A단계 노선이 약 5.8km에 이르며, Thamrin, Monas, Harmoni, Sawah Besar, Mangga Besar, Glodok, Kota 등 총 7개의 역으로 구성된다고 언급
- Tuhiyat 사장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약 55% 수준에 도달했으며, Thamrin역과 Monas역은 '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MRT 2A단계 사업은 두 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1구간인 Bundaran HI-Harmoni는 '27년, 2구간인 Harmoni-Kota는 '29년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23/98/1999100/rabovo-mau-reaktivasi-12000-km-rel-kereta-ini-tujuannya>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23/98/1999000/pembangunan-mrt-fase-2a-bundaran-hi-kota-dikebut-cek-progresnya>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 사장은 MRT 2A단계 건설 사업비가 약 15억불(25.3tril IDR)로 인니-일본간 차관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설명. 한편 Kota에서 West Ancol까지 연장되는 MRT 2B단계는 현재 FS 단계에 있으며, 자카르타 MRT 2단계 전체 노선 연장은 약 11.8km에 달한다고 덧붙임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기관] 산업단지협회, KLIK 프로그램 확대 통해 투자 실현 및 산업 다운스트리밍 가속화 기대⁷⁾
(Bisnis, 12/18)

- 산업단지협회(HKI) 회장 Akhmad Ma'ruf Maulana는 투자실현 가속화와 국가산업 다운스트리밍 촉진을 위해 직접건설투자촉진프로그램(KLIK)의 확대 및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힘. 이어 KLIK가 투자지연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를 제조업 투자의 핵심 진입지점으로 기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덧붙임
- Akhmad 회장은 기술지침 제공과 국가산업단지 표준 수립을 통한 KLIK 강화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투자 확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기반이라고 설명. 또한 KLIK는 투자실현 기간 단축과 지역비용 절감을 통해 인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평가된다고 덧붙임
- 다만 KLIK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점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인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이에 따라 산업계가 기술 기준을 충족한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포괄적인 KLIK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힘

○ [해외기업] UAE Masdar, 국민평의회 부의장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논의⁸⁾
(Antara, 12/28)

- 국민평의회(MPR) 부의장 Eddy Soeparno는 아부다비에서 UAE 기반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18/47/198045/pengusaha-berharap-perluasan-program-klik-percepat-investasi-pengembangan>

8) <https://en.antaranews.com/news/39783/indonesia-masdar-sus-expanding-renewable-energy-investment>

청정에너지 기업 Masdar Clean Energy 경영진과 인니내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힘

- Soeparno 부의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인니가 에너지 주권 확보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Masdar가 인니내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덧붙임
 - 또한 부의장은 Masdar가 참여한 서부자바주 Cirata 수상태양광발전소를 토대로 인니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대한 Masdar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 이어 의회가 신재생에너지 법안, 전력 법안, 기후변화 관리 법안 등 주요 법안을 우선 심의중이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환경이 외국인 투자에 보다 우호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해외정부] Danantara, 미국과 인니 천연자원 관련 관세 면제 확보 협의 진행⁹⁾(Antara, 12/26)
- 경제조정부 장관 Airlangga Hartarto는 국부펀드 Danantara가 미국과 인니 핵심 광물 접근관련 협의를 시작했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협상의 일환으로 인니가 일부 천연자원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밝힘. Danantara는 B2B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니 핵심 광물 부문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과 인니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
 - Hartarto 장관은 미국이 인니 광업 부문에서 새로운 참여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67년부터 운영 중인 Freeport의 구리 채굴과 '70년대부터 니켈 생산을 이어온 Vale Indonesia 사례를 언급. 인니의 니켈·보크사이트·희토류 자원은 미국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희토류 산업은 국영 주석 채굴 기업 Timah의 부산물 중심으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
 -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항공·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인니 핵심 광물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확인.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6년 1월 말 상호무역 협정 서명이 예상되며, 기술적·법적 검토 이후 법률문안 작성 및 언어조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

3. 정부 정책동향

- 에너지광물자원부, 파푸아주를 에탄을 원료 생산기지로 육성 추진¹⁰⁾(Bisnis, 12/17)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에너지자립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에탄을 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파푸아주를 에탄을 원료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 인니가 여전히 상당량의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에탄을 혼합 휘발유 의무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덧붙임
 - Bahlil 장관은 에탄을 원료가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등 다양한 농업 원자재에서 확보될 수 있으며, 파푸아가 국가 차원의 에탄을 원료 생산지로 개발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이를 통해 바이오에탄을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장관은 B40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도 시행중이며, 향후 B50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 해당 정책은 팜유 원유(CPO) 기반 지방산 메틸에스터(FAME)를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혼합 비율 확대 시 대규모 추가 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통신·디지털부, AI·반도체 등 신홍 기술 분야 글로벌 투자에 개방적 입장¹¹⁾(Antara, 12/18)
 - 통신·디지털부 차관 Nezar Patria는 인니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홍 기술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에 개방적이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10)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17/190736/bahlil-dorong-papua-jadi-basis-produksi-bahan-baku-eten>

11) <https://en.antaranews.com/news/397015/indonesia-opens-door-to-global-investment-in-ai-development>

9) <https://en.antaranews.com/news/397007/indonesia-danantara-in-talks-on-us-access-to-critical-minerals>

있다고 밝힘. 이어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기대한다고 덧붙임

- Nezar 차관은 급속한 AI 발전에 대응해 정부는 국가 AI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고, 단기적으로는 ‘25년부터 ‘27년까지 AI 생태계 거버넌스에 집중하며, 연간 10만 명의 AI 인재 양성과 국가주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중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플랫폼을 통해 공공부문 AI 연구를 촉진하고, 재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민간 자본을 결합한 Sovereign AI Fund와 혼합금융 체계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
- ‘26년까지 22억불 규모 FLPP 보조금 주택 28.5만호 공급 확대 목표¹²⁾ (Bisnis, 12/23)
-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공주택저축관리청(BP¹³⁾Tapera)을 통해 보조금 주택 또는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 공급 물량을 ‘26년까지 28.5만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힘. BP Tapera 위원 Heru Pudyo Nugroho는 해당 계획 이행을 위한 총 소요 예산이 약 22억불(37.1tril IDR)에 달한다고 설명
 - 해당 예산은 약 15억불(25.1tril IDR) 규모의 예산집행계획서(DIPA) 예산과 약 6억불(10.4tril IDR)의 원금 상환 재원 재투입분, ‘26년 기준 초기 잔액 약 0.9억불(1.6tril IDR)로 구성된다고 덧붙임. ‘26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정부는 FLPP 공급 물량이 최대 35만호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금융 준비금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
 - 공급 실현 가속화를 위해 BP Tapera는 민형 주택금융 프로그램인 FLPP Sejahtera 공급을 목적으로 43개의 은행과 협력중이며, 국책은행 5곳, 민간은행 5곳, 지방개발은행 33곳으로 구성돼 있다고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23/17199184/prabowo-bidk-penyaluran-rumah-subsidi-28500-unit-2026-nikanya-rp371-triliun>

13) Tapera: 주택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저축 기금

밝힘. 한편, ‘25년 12월 22일 기준 FLPP 자금은 총 27.9만호에 배분됐으며, 집행 규모는 약 20억불(33.66tril IDR)에 달했고, 39개 배분 은행과 8,058개 개발업체가 참여해 총 13.1만호의 주택이 33개 주, 401개 군·시에 걸쳐 건설됐다고 덧붙임

- ‘25년 국가 투자 목표 달성 및 총 실현 투자액 약 1,141억불, ‘26년 1,303억불 목표¹⁴⁾(Jakartaglobe, 12/30)
- 투자부 장관 Rosan Roeslani는 ‘25년 국가 투자 목표를 달성했으며, 총 실현 투자액은 약 1,141억불(1,905tril IDR)에 이를 것이라 전망. 이어 이번 성과가 일자리 창출, 기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
- Rosan 장관은 또한 이번 결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과 투자부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것이며, 해당 정책에는 투자환경 조성, 투자자 신뢰 강화, 유입 자본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고 덧붙임
- 장관은 ‘26년 투자 목표가 약 1,303억불(2,175tril IDR)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적응력 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 이어 투자 주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장관실이 진보적 정책을 시행하고, 전문적·효율적 서비스를 보장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4. 녹색산업 동향

- [현지기업] PLN-Danantara, 신재생에너지 관련 HOA 체결¹⁵⁾(Tempo, 12/23)
- PLN 사장 Darmawan Prasodjo는 국영 전력회사 PT PLN와 국부펀드 Danantara가 인니네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를 위해 HOA를 체결했다고 밝힘.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독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며, 강력한 협상과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14) https://jakartaglobe.id/business/indonesia-meets-rp-1905-trillion-investment-target-for-2025#pg6_rewarded

15) <https://www.tempo.co/info-tempo/tersama-danantara-pln-jajiki-peluang-investasi-energi-banu-terbukti-210176>

- 사장은 Danantara가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MI)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PLN의 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전력공급사업계획에 명시된 친환경 프로젝트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다고 설명. 아울러 이러한 협력은 지역사회와 국가 전력 시스템 전반에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 국민평의회 부의장,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위해 향후 10년간 1,900억불 필요¹⁶⁾(Jakartaglobe, 12/29)
- 국민평의회(MPR) 부의장 Eddy Soeparno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연간 약 190억 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기후위기 심화로 청정에너지 도입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는 향후 10년간 약 1,900억불 규모로 인니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설명
- Soeparno 부의장은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인니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며,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대규모이면서 지속적인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 부의장은 해당 규모의 투자가 약 17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내총생산 기여도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는 제110호 대통령령에 따른 법적체계를 기반으로, 탄소거래를 포함한 인니의 신흥 탄소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임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사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4) 및 이사회의결(25.9.15) / 현재 공사중
- (26년 센터목표) 금융종결 / 프로젝트운영실 이관 / 후속안전 발굴

○ (주요동향) 대출약정 협상 진행중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료 – Termsheet 체결 - 최종 FS 수행 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 설계 완료 및 분양 개시

○ (주요동향) KIND 지원 FS 용역 진행중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수방산단 사업 Pre-FS 수행 / '25.12 정부사업 실사로 인한 사업순연 발생
- (26년 센터목표) 사업개발비 분담 통한 사업 참여 / 사업성 확보시 투자 의결

○ (주요동향) KIND 조직개편 및 본 사업 담당인원 변경

16) <https://jakartaglobe.id/opinion/danantara-jordan-engagement-and-indonesia-s-middle-east-postu>

④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주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여사) 플레너리 +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사업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확정('25.7.8) - 플레너리 참여 합의
- ('26년 센터목표) 플레너리 포함 비용분담, 최종 FS 제출 / Initiator 지위 획득

- (주요동향) 플레너리+K컨소, 자카르타주지사 면담일정 확정

⑤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주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현지건설공기업) + CSCEC(협의중)
- (사업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10월 LTP 기한연장 확정(~26.1) - FS제출용 설계 발주 검토중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달성) / 추가 기한연장

- (주요동향) KIND 조직개편 및 본 사업 담당인원 변경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Nusantara 신도시 (신수도, 또는 정치수도) 건설

< 사업 개요 >

- (발주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업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추구 목적으로 동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 / 프라보워정권 출범후 정치수도로 재명명
- (추진현황) 재정으로 대통령궁 및 집무실, 공무원주택 및 오피스, 도로, 사법단지 등 완공 및 건설중 - PPP로 지하공동구(MUT), 공무원주택, 관제센터 등 추진중
- ('25년 센터목표) 공무원주택 FS 협조 / 관제센터 등 추가사업기회 구체화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회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현지기업] Angkasa Pura Indonesia, 신수도 상업공항 전환 대비 운영 준비¹⁷⁾(Bisnis, 12/17)

- 인니 국영 항공·공항 운영사 PT Angkasa Pura Indonesia (InJourney Airports) 사장 M. Rizal Pahlevi는 자사가 신수도내 공항 운영 주체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향후 해당 공항이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운항하는 공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신수도 공항 지위 전환을 대비해 향후 준비해야 할 프로그램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덧붙임
- 사장은 현재 Angkasa Pura Indonesia는 인니 전역에서 총 37개 공항을 운영중이며, 신수도 전용공항이 공식적으로 상업공항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발리파판 Sepinggan 공항을 통해 신수도를 접근하는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진입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신수도 공항의 지위를 전용공항에서 공공공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설명. 해당 절차는 ‘25년 6월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총국으로부터 공항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수도 전용공항으로 공식 운영을 시작한 이후 추진되고 있으며, ‘28년 정치수도로 기능하게 될 정부핵심업무지구(KIPP)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Gibran 부통령, 신수도 정부 인프라·공공시설 점검 및 부통령궁 방문**¹⁸⁾
(Bisnis, 12/30)
 - 부통령 Gibran Rakabuming Raka는 12월 30-31일 신수도(IKN)를 방문해 정부 인프라와 공공시설 진행상황을 점검. 이번 방문은 신수도 개발이 통합적·포용적·공공서비스 지향으로 추진하라는 프라보워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 Gibran 부통령은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 동칼리만탄 주지사 Rudy Mas' ud, TNI VI/Mulawarman 군사사령부 사령관 Krido Pramono, 동칼리만탄 경찰청장 Endar Priantoro 경정에게 환영받았다고 덧붙임
 - 첫째 날, 부통령은 국립모스크, Plaza Kerukunan, 바실리카 교회, 부통령궁 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을 점검했으며, 둘째 날에는 신수도 교육구역, 입법·사법 구역, North Penajam Paser郡 Sepaku 전통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방문은 신수도 건설 속 지역주민 경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함이고, 정부는 신수도 개발이 환경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행정 중심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

② 포노고로 스마트가로등 PPP

< 사업 개요 >

- (발주처) 포노로고시(Ponorogo Regency)
- (참여기업) 도화엔지니어링, 에코란트
- (사업비) 328억원
- (사업내용) 2,623개 스마트 가로등 설치, 기반공사 및 운영
- (추진현황) 인근지역 KCN 실증 완, 호평 – 포노로고 대상 KIND FS지원, 준공(‘24.3) - 물량확대로 도화 자체적 FS보완 - KIND에 제안서작성지원 신청검토
- (‘26년 센터목표) 문서/절차 완결성 검증 및 사업 참여여부 결정

○ (주요동향) 문서/절차 이슈 점검 중

- Letter To Proceed 포함 문서 및 절차적 문제가 없을 때 KIND도 비용투입 가능함을 사업주(도화)에 전달

③ 바탐 항나딤 공항 확장

< 사업 개요 >

- (발주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업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26년 센터목표) 재원조달 상황 점검 및 사업 참여여부 결정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30/45/194048/gibran-berkantor-di-ikn-nusantara-2-hari-akhir-pembangunan-istana-wapres-hingga-pasar-rakyat>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5. 12월 5주~'26. 1월 1주)
 - 네트워킹 5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투증권 · 신한증권 · LG CNS, 건설공제조합, Pine Energy, 수출입은행
 - 사업개발 6건 : GS건설, 현대건설, Jababeka, BK글로벌, Butonas, LH
 - 대관업무 1건 ; 주인니 신임대사 신년하례회 및 신임 국토관 상견례